

# ‘마린보이’ 박태환 5관왕

전국체전 자유형 200m·400m·계영 400m·800m·혼계영 400m ‘우승’



‘마린보이’ 박태환(인천시청)이 혼계영 400m에서 우승하며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첫 5관왕에 올랐다. 박태환은 26일 충북 청주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마지막 날

수영 남자일반부 혼계영 400m에 출전해 팀 동료들과 3분38초55를 기록, 금빛 물살을 갈랐다. 부산이 3분41초88로 2위를 차지했고 경기가 3분42초08로 그 뒤를 이었다.

우승을 차지한 계영 800m·400m 경기와 마찬가지로 박태환은 이날 마지막 영자로 나섰다. 폭발적인 스피드를 선보이며 인천 선발전의 우승을 이끌었다. 이로써 박태환은 계영 800m에서 첫 금메달을 딴 후 자유형 200m·400m, 계영 400m, 혼계영 400m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다섯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5관왕을 달성한 선수는 박태환이 유일하다. 4관왕은 자전거 김유로(경기), 체조 윤나래(충북), 수영 박정훈(서울), 수영 다이빙 김수재(울산), 수영 장동혁, 이호준, 박수지(이상 서울) 등 7명이다. 박태환은 전국체전에서 4차례 MVP에 뽑혔다. 2005년(4관왕), 2007~2008년(5관왕), 2013년(4관왕) 등이다.

뉴시스

## 삼성화재 신진식 감독 “첫 승 쉽지 않네요”

5세트 14-12에서 타이스의 공격이 특점으로 연결된 순간, 잔뜩 경직된 표정으로 코트를 응시하던 신진식 감독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삼성화재는 25일 서울 잠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7~2018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3-2(25-20 21-25 27-29 25-21 15-12)로 이겼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삼성화재 지휘봉을 잡은 신 감독의 리그 첫 승이었다.

현역 시절 ‘갈색 폭격기’로 통했던 신 감독에게 패배는 남의 일이었다. 2000년대 초반 무려 77연승을 이끈 장본인이니 그럴 만도 했다. 신 감독과 삼성화재는 지는 것보다 이기는 일이 훨씬 익숙했다.

감독이 된 뒤 리그 2연패에 빠졌던 신 감독은 과거 삼성화재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김상우 우리카드 감독을 상대로 첫 승을 신고했다.

처음으로 승장 인터뷰에 나선 신 감독은 “진짜 쉽지 않네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신 감독은 “컵대회 때 이겼을 때가 더 좋은 것 같다.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많이 배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한화서 뽀 로저스, 넥센 유니폼 입는다

구단 외국인 역대 최고액 총 150만 달러...밴헨과 재계약 포기

한화 이글스에서 KBO리그를 경험한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 에스밀 로저스(32)가 넥센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게 됐다.

넥센은 26일 로저스와 역대 구단 외국인 선수 최고액인 총 15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의 로저스는 192cm 90kg의 체격에 150km대 직구를 비롯해 커터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등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한다. 결정구로 사용하는 커터는 수준급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 한화의 대체 외국인 투수로 KBO리그에 데뷔한 로저스는 그 해 10경기에 등판해 6승 2패 평균자책점 2.97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거 출신다운 투구로 완투 4차례, 완봉승 3차례를 거두며 인상적인 활약을 선보였다.

로저스는 다음해인 2016년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6월까지 이어진 팔꿈치 통증으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방출됐다.

미국으로 건너간 로저스는 7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고 1년여의 재활을 거친 후 지난 7월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 산하 트리플A 팀인 시라큐스 치프스와 계약했다.

올 시즌 7경기에 등판해 3승 2패 평균자책점 3.18을 기록한 로저스는



현재 컨디션과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 윈터리그에서 뛰고 있다.

넥센과 입단 계약을 체결한 로저스는 “KBO리그에서 다시 한 번 야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넥센 구단에 감사드립니다”며 “야구를 시작하고 처음 당한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수술과 재활 과정을 겪었다. 힘든 기간이었지만 내 안에 잠재해 있던 야구에 대한 열정과 의욕이 얼마나 큰지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KBO리그를 경험하면서 넥센이 매력적인 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이 팀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팀에 잘 적응해 한국시리즈 우승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넥센은 2012시즌부터 6년간 함께했던 밴헨과 내년 시즌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 “에이스가 아니어도, 머리를 짧게 깎아도 좋다”

삼성화재 박철우 “팀 이길 수 있다면 뭐든지”



삼성화재 ‘베테랑’ 박철우는 지난 20일 OK저축은행전에서 패한 뒤 팀 동료 박상하에게 “머리를 자르자”는 말을 던졌다. 농담 삼아 내뱉은 박철우의 한마디에 박상하는 “나는 깎아도 된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두 선수의 대화를 필두로 삼성화재는 이날 열풍이 불었다. 25일 서울 잠충체육관에서 우리카드를 상대한 삼성화재 선수단이 약속이라도 한 듯 짧은 머리로 등장한 이유다.

짧아진 머리가 전부는 아니겠지

만 어쨌든 삼성화재는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삼성화재는 이날 풀세트 접전 끝에 우리카드를 3-2(25-20 21-25 27-29 25-21 15-12)로 꺾었다.

경기 후 만난 박철우는 “예전에 기사를 봤는데 야구 선수들이 머리를 자르면 성적 30%가 오른다”라며 “이길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자를 수 있다”고 웃었다.

박철우는 팀 승리를 위해 외치고 또 외쳤다. 수훈선수 인터뷰 때 잔뜩 목이 잠겨 말이 잘 나오지 않았을 정도다.

박철우는 “미친 듯이 악을 지르자고 했다. 배구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의욕에서는 지지 말자고 했다. 지고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 3세트가 조금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았다”고 돌아봤다.

라이트 공격수인 박철우는 24점, 공격성공률 66.6%를 기록했다. 고비 때마다 타이스(34점)와 공격을 양분하며 득점을 양산했다.

어깨를 으쓱할 수도 있는 성적이지만, 박철우는 한껏 자세를 낮췄다. 오히려 자신이 아닌 타이스가 중심이 돼야 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철우는 “나도 공격을 많이 때리면 좋다. 하지만 한 팀에 에이스가 둘이 될 수는 없다. 에이스를 살려줘야 한다”면서 “배구는 세 번 밖에 터치를 할 수 없다. 비슷한 선수가 있다면 공을 나눠줘도 되지만 월등히 좋은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가 마지막 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철우는 “내가 에이스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팀이 이길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난 그저 목만 매번 쉬었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뉴시스

## 정현, 세계 남자 테니스 ‘차세대 주자’ 인정 받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출전 확정...스위스 인도어스 대회는 2회전 탈락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21·한국체대·세계랭킹 57위)이 세계 남자 테니스의 ‘차세대 주자’로 인정받았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공식 홈페이지는 26일(한국시간) “정현이 11월 7~1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

스’ 출전 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는 21세기 이하 선수들 중 세계 랭킹 상위 8명이 출전하는 대회다.

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는 정현을 비롯해 안드레이 루블레프(20·러시아·세계랭킹 35위), 카렌 카차노프(21·러시아·세계랭킹 42위), 데니스 사포발로프(18·캐나다·세계

랭킹 49위), 재러드 도널드슨(21·미국·세계랭킹 50위), 보르나 초리치(21·크로아티아·세계랭킹 54위), 다닐 메드베데프(21·러시아·세계랭킹 67위) 등 7명의 출전이 확정됐다.

남은 한 자리는 개최국인 이탈리아 예선에서 우승하는 선수가 차지하게 된다.

21세 이하 선수들 가운데 세계랭킹이 5위로 가장 높은 알렉산더즈 베레프(20·독일)는 11월 12일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는 ATP 파이널스에 출전하기 위해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출전을 포기했다.

한편 정현은 ATP 투어 스위스 인도어스 바젤 단식 2회전에서 탈락했다.

정현은 이날 스위스 바젤에서 벌어진 2회전에서 세계랭킹 10위 다비드 고핀(27·벨기에)에 0-2(4-6 1-6)로 완패했다.

뉴시스